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국대학교병원 9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면 2길 6번지

2016년 2월 26일 금요일 (음 1월 19일) 제15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더민주 컷오프 발표 후

대상 의원들 강력 반발 '파열음'

전정희, 이의 신청 제출 홍의락, 탈당 공식 선언 2차 확대서 불안 증폭 도내선 김종인 반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한 이후 균열음이 커지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서 조용한 듯 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지방면에서 파열음이 들려오는 모양새다.

특히 컷오프 대상자가 확대 될 것이란 발표와 함께 의원들의 동요가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먼저 이번 10명의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이다.

전북에서는 전정희 의원측이 계파 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고 이런 식이라면 익산뿐 아니라 전북 필패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정희 의원(익산)은 25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의원은 "지난 4년간 상위 25%에 게 수여하는 종합 현정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의정활동에 최고의 성적을 보인 초선 의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평가 잣대로 컷오프 시간것은 상식과 정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계파 없이 오로지 국민과 지역 유권자를 위해 소처럼 성실하게 일했던 여성의원에게 대한 학살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의신청이 요식행위에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기원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스카우트연맹 빌딩에서 열린 2016 한국스카우트연맹 전국 정기총회에 평생회원증을 받은 송하진 도지사 외 합중환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비롯한 전국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불과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인 사에 대한 전략공천의 희생물로서 여성 의원을 공천배제시킨 중앙당의 비민주적인 행보를 개선하고 '익산'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였던 홍의락 의원은 자신이 컷오프 대상이 된 데 대해 "당이 대구를 버렸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컷오프 2차 확대에서 또 다시 동요

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표 사퇴 주장 이후 내부 파열 등 공천갈등의 불씨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다.

특히 더민주 현역의원 모두가 "나는 예외가 아닐 것"이란 생각이 존재하는 상황인지를 2차 컷오프가 시작될 경우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컷오프 대상이 된 의원들이 반발하며 추가 탈당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종인 비

대위원장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컷오프를 통해 갈등을 또 다시 조장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며 극도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컷오프 파열음이 이번 총선에서 득(壽)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물갈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내부 분열을 보일 경우 그 장애가 불보듯 뻔하

다는 것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략공천 가능성에 다 컷오프 확대까지 나오면서 살얼음을 걷는 형국"이라며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내 수장 역할을 하는 당사자로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당 내부적으로 공감받지 않는 혁신은 갈등만 앙상할 뿐이고 이번 총선결과가 말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광영 기자

▶ 매일 INDEX

더민주 도당 총선 공약구제화

기금운용본부 사수 탄소중심도시 조성 새만금사업 3.0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총선정책기획단(단장 김성주)은 25일 20대 총선 7대 공약구제화 구체화에 나섰다.

7대 공약구제화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 이전으로 국제금융도시 전북 ▲탄소산업중심도시 조성 ▲잡종과 미래의 농식품 산업의 수도 전북 ▲문화관광과 연계한 전통문화수도 조성 ▲새만금 사업 3.0 ▲지덕권 동반 성장사업으로 전북균형발전 ▲사회적 경제 선도지역 전북이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국제금융도시 전북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구제에 맞서 정치적 대응과는 별개로 금융타운 조성, NPS복지플렉스 건립 등의 공약구제를 통해 차질없는 전북구제에 뼈기를 박기위한 것으로 도당의 메가공약(대표공약)으로 의견을 모았다.

탄소산업중심도시 조성은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최근 경북 등 타시도가 탄소산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 분야의 비교우위를 점하고 특화된 방향으로 세부이행계획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전북도당은 김성주 기획단장 페이스북을 활용해 '제안합니다' 타이틀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 공약을 공론화하기로 했으며,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공약구제발 진행상황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습니다.

앞으로 인터넷과 IPTV에서 술 광고를 접하기가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주류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술 광고를 제한한다.

이른바 움직이는 이동 광고판으로 불리우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도 술 광고 금지 매체 대상이 된다. 이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마저 음주를 부추기는 환경에 고스란히

인터넷·IPTV에서 술광고 볼수 없다

정부, 정신건강 대책 발표

대중교통도 금지 대상 포함

알코올 중독 가이드라인 제작

노출돼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술 광고는 지금껏 현행법상 종합 유선방송을 포함한 TV와 라디오, 도시철도의 역사에서만 규제 받아

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알코올 17도 이상의 술을 광고해선 안 된다. 또 TV는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라디오는 오후 5시~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 방송이 금지된다.

라디오의 경우 오전 8시~오후 5시에도 미성년자가 청취 가능한 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로 술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을 타고 주류 광고 노출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도 시도때도 없이 술 광고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때문에 술 광고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주류용기에만 표기되던 경고 문구를 술 광고에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주세법에 따라 주류용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는 내용이 쓰여있다.

복지부는 또 술 판매 장소·숫자를 제한하고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 등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알코올 중독 노출 정도와 위험성 등을 분석해 적정 이용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는 음주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다"면서 "음주 폐해를 알리는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해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2면 전북 탄소산업 발전위 공식 출범

전북도가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탄소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심점이 마련됐다.

3면 부동층, 도내 아권단일화 승부 열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이번 총선의 사실상 아권단일화 승부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4면 호남출신의병장 함일기 특보

일본군에 맞서 싸운 남원출신 항일의병장 이평국 3부자와 임기주 형제 등 호남출신 항일투사 36명의 활약상과 인적사항이 기록된 문건이 경남 하동에서 발굴됐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